

# “지역사회 동반자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 윤순일 조선내화 광양공장장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종합대상 '내화물 국산화' 산업 발전 기여 '환경 보호·에너지 절약 최우선'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한 조선내화 윤순일 광양공장장의 각오다.

이상암 대표를 대신해 10일 대상 수상자로 나선 윤순일 공장장은 수상의 공을 임직원에게 돌렸다.

윤 공장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ECO여행 프로젝트’와 녹색환경운동 실천을 위해 매년 5월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광양 배알도 해안 일원의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주말, 휴일 간에도 행사들이 편성됐는데



제30회 녹색환경대상을 수상한 조선내화의 윤순일 광양공장장. 김양배 기자

지역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투철한 사명 의식 덕분에 이 상을 수상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내화는 지난 1974년과 1978년 잇따라 조선내화 포항 1·2 공장을 준공한데 이어 1986년 광양공장을 세우면서 한국 제철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이다.

특수고알루미나질 벽돌, 정형내화물, 캐스팅 블록 등을 생산하며 포스코와의 독점 거래선을 유지, 국내 내화물시장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신제품과 신원료 개발, 70여건의 특허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던 제철과 제강, 시멘트, 유리 산업용 내화물의 100% 국산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배경에는 내화물 대표기업으로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주요했다.

조선내화는 내화물 100% 국산화 전환

외에도 지난 2000년부터 24년째 무교섭 타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지주사 CR홀딩스를 신설하고 지주사 체제를 갖춘 것에 대해 임직원들은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무교섭과 2024년 임금 동결로 화답했다. 이에 조선내화는 태극기, 사기, 무재해기와 노동조합기를 함께 게양하며 빛나는 노사문화를 한 번 더 증명했다.

조선내화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회사를 향한 신뢰와 단결력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펼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 공장장은 “2017년 조선내화 창립 70주년을 맞아 노사상생문화를 새기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사평화담을 건립한 바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에너지 절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국내 내화물 발전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 연극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장흥군, 14일 오후 3시·7시



장흥군은 연극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를 오는 14일 오후 3시와 7시 2회에 걸쳐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서 개최한다.

연극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창작공연이다.

공연 주관 단체인 극예술창작집단 ‘흥’은 장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다. 매년 지역의 문화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 작품과 공연을 기획해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장흥에서 나고 자란 이점숙 여사를 주인공으로, 칠순잔치를 앞둔 이 여사의 인생이야기를 사실에 기반한 창작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장흥에서 활동하는 배우, 스태프 등 40여명의 열연과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의 우정출연 등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다.

사전예매(010-8538-5824), 당일 현장예매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고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문화예술회관(061-860-58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 국·공립·대학박물관 교류 전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10일부터 오는 2025년 1월1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옛 그림 속 고흥 이야기’라는 주제로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전시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 박물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체결된 국공립박물관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전시에서는 순천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인 영모화(翎毛畵) 14점을 통해 고흥의 역사와 민속,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보인다. ‘옛 그림 속 고흥 이야기’라는 큰 주제 안에 ‘조선시대 말 목장, 흥양’, ‘민화 속에 나타난 고흥의 특산품’, ‘자연과 새가 어우러진 고흥’ 등 세 가지로 소주제로 구성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과 관련된 영모화를 통해 조선시대 흥양(興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송년의 밤’ 작은음악회 개최 순천시 낙안면

순천시 낙안면은 12일 ‘낙안의 하모니, 함께하는 송년의 밤’을 주제로 낙안주민복지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낙안면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어린이 율동, 학생댄스, 우쿨렐레 연주, 합창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화합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초청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성악, 통기타 연주, k-pop 댄스,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한다. 마지막에는 클라리넷과 피아노의 아름다운 악기 연주가 송년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점등식, 희망트리 만들기 행사도 열린다. 주민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카드를 만들어 크리스마스트리에 걸며 지역 주민들과 새해 소망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교구 대여 사업을 통해 대여한 교구로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구 대여 사업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구 대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구 대여 사업은 영유아의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 채소·과일 편식 예방, 물 마시기, 이 닦기, 손 씻기 등 4종의 교구를 대여해 주는 것으로, 기관당 1종류씩 2주간 대여할 수 있었다. 센터는 교구

와 함께 학습안을 제공함으로써 원내 자체적으로 반복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했다.

고상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교구 대여 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전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 공유

### 우수사례 발표 등

전남도는 10일 여수베네치아호텔에서 광역·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표창과 함께 시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는 나주시, 진도군, 보성군 보건소가 선정됐으며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과 함께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군 우수사례로는 △상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한 강진군의 ‘군민의 마음쉼터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 △교육성과 연계한 방과 후 아동 정신건강프로그램인 영암군의 ‘지피의 친구들’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완도군의 ‘자연과 함께하는 오감 활용 프로그램’ 등 3개가 선정됐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전남도는 도민의 일상 속 마음돌봄을 위해 정신건강관리 앱 ‘터치마인드’, 취약계층 이동상담실, 마음안심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생명사랑마을 지정(2000개소), 생명사랑지킴이 양성(2만

8000명) 등 매년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11개소)하고 경찰·소방과 함께 정신건강 위기 현장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도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 100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내 5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이상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예방부터 회복까지 일상 속 마음돌봄 정착을 위해 도민 체감형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2026~2028년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 광양시, 내년 2월20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6~2028년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20일까지다.

지원되는 비료는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도 및 패화석)이며 공동살포 대행단을 구성한 읍면동에서는 개별살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공동살포 신청도 가능하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며 농지별로 3년 1주기로 실시된다.

오는 2026년 공급지역은 광양읍·봉강면이며, 2027년은 옥룡면·옥곡면·진상면, 2028년은 진월면·다압면 등을 대상으로 토지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농지와 면적, 공급희망월, 비료의 종류를 작성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송명중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산물 생산력 확대를 위해서는 토양환경을 개선해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안영준 기자